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고백은 영혼에 이롭다 [느헤미야 9]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1 그 달 이십 사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굶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3 이 날에 낮 사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4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찌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옵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6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7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8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9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11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 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12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셨사오며 13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14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15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16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 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8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19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20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21 사십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사오며 22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저희가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23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4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25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26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27 그

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발하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 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번 긍휼을 발하사 건져내시고 29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0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31 주의 긍휼이 크시므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심이시이다 32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33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히 행하셨음이시이다 34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35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고로 36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삽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37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38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에 대해 지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죄를 자백했을 때 그 피해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파괴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면전에서 날 조롱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놀라운 점들 중 하나는 하나님께 고백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 9, 10장은 이것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선 죄를 고백하고(느헤미야 9장)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느헤미야 10장)입니다. 고백은 우울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1, 이 고백의 토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대한 축하잔치를 마쳤습니다. 이들이 지난 후 이들은 슬픔의 기색을 걸어로 내비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죄를 고백할 때 나타나는 적절한 반응입니다. 오늘 설교본문 4절엔 이들이 3시간동안 죄를 자백했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세하고 정직하게 죄를 자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본문 8절에서 이들의 죄의 고백이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 삶에 규칙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하고 그 분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무엇을 할지 요구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2, 이 고백의 차이: 고백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차이에 관한 연속적인 열거로 이뤄졌습니다. 이 차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세대들을 걸쳐 살펴본 것들이지만 이것은 모두 같은 요점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매 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과 은혜의 방법들로 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슬픈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출애굽세대)은 그 분의 강한 힘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느헤미야 9:9-21) 그 분께서는 적들을 물리치시고, 율법을 주셨으며, 그들의 필요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을 꼴꼴이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9:16)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고 (느헤미야 9:17) 하나님 대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 9:18)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지구상에서 쓸어버려 없애실 모든 이유들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들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들을 우리를 저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40년 동안 잘못을 저질러도 그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적용들

1,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 열린 마음과 정직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분의 은혜를 거역한 모든 죄들에 관해 그 분께 자백해야 합니다. 그 분께서는 수많은 축복들로 우리들을 풍성히 채워주셨으나 우리는 그 분께 언제나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했음을 자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우리는 오늘 설교본문이 주는 영광스런 소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도 역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라는 점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우리는 축복을 소망합니다. 이 기도(죄의 고백)에 관한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은 죄 사함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현재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축복받지 못하고 있으며 고통 가운데 있다고 (느헤미야 9:37) 말씀드리는 것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고통 받는 것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역시 원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소망을 그 분께 두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 불변하시기에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 9:17b).